

현대 8연승 고공비행



루니-후인정 불꽃타 LG 화재 완파
삼성·대한항공도 한전·상무 꺾어

현대캐피탈이 LG화재의 확실한 '천적'으로 자리잡으며 거침없는 8연승 행진으로 선두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현대캐피탈은 1일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2005-2006 V-리그에서 최장신(206cm) 용병 손 루니(15점)와 '스카드 미사일' 후인정(14점)의 공격이 불을 뿜어 이경수(12점)가 분전한 LG화재를 3-0(27-25 25-20 25-14)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현대캐피탈은 지난달 14일 LG화재전 승리 이후 8연승 고공비행을 계속하며 11승(1패)을 기록, 삼성화재(9승3패)를 따돌리고 선두를 질주했다.

현대캐피탈은 또 LG화재와의 3차례 대결

을 모두 3-0 완승으로 장식, 이번 시즌 상대 전적 3전전승의 절대적 우위를 지켰다.

반면 전날 삼성화재전 3-1 승리로 2연패에서 벗어난 LG화재는 '장신군단' 현대의 벽에 또 한번 막혀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현대에는 지난해 12월 최우수선수(MVP)로 뽑힌 용병 루니의 한뼘높은 스파이크와 후인정의 불꽃 강타로 상대 수비를 무력화시키고 이선규, 윤봉우 등 장대 센터진의 철벽 블로킹을 앞세워 LG 공격의 여봉을 꺾었다. 경기 초반 양팀 주포인 루니와 이경수간 스파이크 대결이 불꽃을 튀기면서 접전이 펼쳐졌지만 현대가 먼저 기선을 잡았다.

1세트 이경수에게 왼쪽을 뚫려 12-13으로

끌려가던 현대는 루니가 중앙 구석을 찌르는 연타와 큰 키를 이용한 고공 강타로 14-13으로 전세를 뒤집은 뒤 22-21에서 루니의 연속 스파이크가 작렬, 24-23으로 앞섰다.

상대 이경수의 왼쪽 대각선 공격에 24-24 듀스를 허용한 현대는 25-25에서 상대 용병 키드의 범실과 윤봉우의 제치있는 페인트 공격으로 접전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세가 오른 현대는 2세트에도 13-10에서 이선규의 연속 가로막기와 루니의 서브 포인트로 3점을 몰아친 뒤 후인정이 후위공격과 블로킹을 성공시켜 승부를 갈랐다.

삼성화재는 한국전력을 3-0(25-18 25-14 25-19)으로 완파하며 전날 LG화재전 패배 충격을 조금이나마 털어냈고, 대한항공도 상무의 3연승 상승세를 3-0(29-27 25-22 25-16)으로 잠재우고 상당절 패배를 설욕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블은 어디로... 1일 안산와동체육관에서 벌어진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왼쪽)과 신한은행(오른쪽)의 경기에서 신한은행 맥윌리엄스(오른쪽)와 삼성생명 변연호가 치열한 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 한국 첫 상대 토고 기니·짐바브웨와 평가전

2006 독일월드컵 본선 한국 축구대표팀 첫 상대인 아프리카 북변 토고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앞두고 기니, 짐바브웨와 평가전을 갖는다.

1일(이하 한국시간) 토고 축구협회 홈페이지(www.ftf-enligne.tg)에 따르면 토고 대표팀은 4일 튀니지 항구도시 스파스에서 선수를 소집한 뒤 프랑스 파리로 떠나 7일에는 기니, 11일에는 짐바브웨를 상대로 각각 평가전을 치른다.

한편 토고는 지난달 30일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리비아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일본 조총련계 고교 日전국대회 첫 승리

제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계열의 고교 축구부가 일본 전국대회에서 사상 첫 승리를 거뒀다. 오사카 조선 고교학교는 지난달 31일 카시노하와공원 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84차 전일본 고교축구선수권대회 1차전에서 니시메고교를 1-0으로 누르고 사상 첫 전국대회 승리라는 감격을 누렸다.

조총련계 고교가 전국 단위 축구대회에 첫 출전한 것은 1996년 이전에는 대회출전이 아예 금지되어 있었다. 국내 소년체전과 비슷한 '고교총체'에 나간 것도 1994년이 처음이다. 조총련계 동포들이 수년간 서명운동 등을 벌인 끝에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전 일본 고교축구선수권대회에는 5년전 첫 출전했지만 1회전에서 패배했다. /연합뉴스

표도르 에멜리아넨코 '프라이드 남제' 승리

'얼음주먹' 표도르 에멜리아넨코가 '프라이드 남제(男祭)'에서 승리, 세계 최강의 파이터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반면, '하이킥의 달인' 미르코 크로킥은 지난 8월 표도르에 진 뒤 이날 마크 헨트에 또 판정패했다. 표도르는 지난달 31일 일본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아레나에서 열린 '프라이드 남제 2005'에서 브라질출신의 줄루를 상대로 1라운드 KO승을 거뒀다.

표도르는 이날 공포의 오른손 강타에 이른 왼손 훑음 줄루의 오른쪽 목덜미에 적중, 육중한 몸집의 줄루를 무너뜨려 20여초만에 KO승했다. /연합뉴스



2일(월)
▲WKBL 여자농구(국민은행-신세계) (14:00-KBS SKY Sports), <우리은행-금호생명>(16:00-KBS SKY Sports)



신한銀, 삼성생명 잡고 선두 추격

안산 신한은행이 장신 농구의 위력을 발휘하며 선두 추격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겼다.

신한은행은 1일 안산 와동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금호아시아나배 2006 여자프로농구 겨울리그에서 태즈 맥윌리엄스(21점, 23리바운드)와 강지숙(16점, 8리바운드)이 끝말을 장악하며 용인 삼성생명을 67-61로 제압했다.

이로써 신한은행은 새해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4승1패를 기록, 선두 천안 국민

은행(4승)에 0.5경기차로 다가섰다.

올 시즌에 대비, 체중 감량으로 스피드를 보강한 강지숙은 1쿼터 14점, 5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초반부터 신한은행 쪽으로 분위기를 바꾸는데 한 몫을 했다.

주부 외국인 선수 맥윌리엄스도 3쿼터까지 17점, 18리바운드를 올려 탄젠탈 스미스가 혼자 버틴 삼성생명 끝말을 유린했다.

박정은(16점, 5어시스트)의 득점에 의존하던 삼성생명은 3쿼터 강지숙의 득점이 주

춤하는 사이 다양한 득점트트를 활용, 3쿼터 시작 2분께 40-39로 한때 역전에 성공하며 접전을 펼쳤다.

그러나 전주원의 3점포와 맥윌리엄스의 공격 리바운드가 활기를 띤 신한은행은 다시 점수차를 벌리기 시작해 3쿼터를 53-45로 앞선 채 마쳤다. 4쿼터 들어 신한은행은 한제진, 강영숙 등 두터운 백업 멤버들이 득점에 가세하며 더 이상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헬스클럽서 몸 만들고 모교서 기술훈련

해외파 야구선수들 심없는 담금질

해외파 야구 선수들이 병술(丙戌)년 새해 벼두부터 강도높은 훈련으로 2006년 시즌을 준비한다.

'말형' 박찬호(32·샌디에이고 파드리스)를 필두로 서재응(28·뉴욕 메츠), '이치훈사단'의 최희섭(26·LA 다저스), 봉중근(25·신시내티 레즈), 콜로라도 로키스 '듀오' 김병현(26), 김선우(28) 등 메이저리거와 일본프로야구 진출 3년째를 맞는 이승엽(29·롯데 마린스)에게 다가오는 시즌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지난해 11월 결핵환 '새 신랑' 박찬호는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새해 첫날 가족과 단란하게 보내면서도 계속해서 체력훈련을 멈추지 않는다.

오는 9일로 예정된 WBC 대표팀 유니폼 발표회에 참가하려고 출국을 늦추지만 부활을 위한 몸 만

들기로 컨디션을 최대한 끌어 올리고 싶어한다.

성탄절(25일) 결혼식 후 삿포로로 신한은행을 다녀온 서재응도 서울 처가에 잠시 들렀다. 고향 광주 집으로 이동, 가족과 새해를 보내고 영하의 차가운 날씨에도 모교인 광주일고에서 후배들과 1월 중순까지 훈련할 계획이다. 최희섭과 봉중근은 '차세대 빅리거' 유제국(22·시카고 컵스)의 모교인 덕수정보고에서 합동 훈련을 한다.

이와 함께 대구 헬스클럽에서 강도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이승엽도 연초 훈련과 휴식을 병행하다 오는 20일께 일본으로 출국, 2월14일까지 이어지는 호주 전지훈련에 참가한 뒤 2월19일 후쿠오카에서 소집되는 WBC 대표팀에 합류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찬호



서재응



이승엽

고개숙인 FA

박재홍·송지만·전준호등
새해 친정팀과 협상 재개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 나와 다른 구단의 러브콜을 맞았음에도 FA 7명이 원소속 구단과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는다.

원소속 팀을 제외한 7개 구단과 협상을 벌일 수 있는 마감시한(12월31일)을 넘기고 새해를 맞은 박재홍(32)과 위재영(33·이상 전 SK), 송지만(32) 전준호(36·이상 전 현대), 전상열(33), 김창희(32), 홍원기(32·이상 전 두산)가 친정팀과 협상을 재개하는 것.

남은 7명 중 최대어로 꼽히는 박재홍은 4년간 총 35억원을 요구했으나 당초 SK가 제시했던 4년간 23억5천만원에서 다시 출발 가능성이 높다.

SK는 투수 이승호와 이진영 등 주전급

선수 10여명이 아직 재계약을 하지 못한 만큼 FA 박재홍과 위재영간 협상을 병행, 야수조가 미국 사이판으로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는 오는 31일 이전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4년간 총 33억원과 2년간 11억원을 요구했던 송지만과 전준호는 현대와 재협상에 나선다.

이와 함께 두산의 'FA 3총사' 전상열과 김창희, 홍원기도 친정팀이 붙잡아주기를 기대하지만 두산으로서 '빅3'인 김동주(종전 연봉 3억2천만원), 홍성흔(2억8천만원), 박명환(2억6천만원)을 포함한 14명이 미계약 상대에서 FA들이 원하는 몸값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New Spring' (새봄) featuring a bottle of beverage and a scenic landscape. Text includes '음식을 쓰러기 스트레스 해방' and '새봄'.

Advertisement for '은혼영 외출이 고교생 4만명 넘어' featuring a man in a suit. Text includes '학업에 심은 걱정' and '다모야라'.

Advertisement for '기쁨총포무역' (Joy Gun Trade) featuring images of rifles. Text includes '50% 할인 판매' and '기쁨총포무역'.

Advertisement for '건설 면허의 모든 것' (Everything about Construction License) featuring a diagram and text. Text includes '상업/양도/양수' and 'C&S'.